예산균열 씻고 협력 복원…대통합론도 거론

국민의당·바른정당, 국회서 '국민통합포럼 세미나'

안철수 "외연 넓혀야" 유승민 "입법·정책연대 방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7일 세미나를 열고 최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균열을 수습하고 이후 입법 정국에서 정책연대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철수 대표가 당내 반발에도 통합 행보를 이어가는데다 세미나에서 두 당뿐 아니라 다른 정치세력까지 결합하는 대통합론까지 거론되면서 다시 통합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다만 바른정당이 통합보다는 정책연대, 나아가 선거연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세력의 결집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 당의 향후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는 예단이 힘든 상황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당 의원모임인 '국민통합포럼 세미나'를 열고 양당 정책연대의 과제와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찬성 쪽으로 가닥을 잡고 사실상 민주당과 공조한 데 비해 바른정당은 당론 반대 입장을 정해 양측의 균열이 감지되긴 했지만, 이날 양측 지도부는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봉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안 대표는 인사말에서 "다당제는 한국정치의 발전이자 시대의 흐름으로, 이를 지키는 주축인 3당과 4당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바른정당과 충분한 소통이 없이 협상이 마무리된 것에 죄송스럽다. 정책 공조는 그렇게(예산처럼)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을 것"이라며 예산안 균열 수습에 주력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역시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다. 여기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통합 문제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안 대표는 "정당은 중심을 잡고 외연을 넓혀야 한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명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분명 양당간 통합의 때는 온다. 그때까지는 신뢰를 구축하는 데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때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만의 통합이 아닌 수많은 정치세력이 함께하는 대통합이 될 것"이라는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자유한국당이 아닌) 온건 개혁세력의 대통합을 얘기한 것"이라며 "지방선거 선거연대 후에는 반드시 (통합의 때가) 온다. 내년을 넘기지 않고 온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현재 정책연대나 선거연대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후 통합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당이 장시간 내홍을 겪는 만큼 당내 상황이 어느 정도 정돈될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다.

바른정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의당 내부가 복잡한 만큼 우리가 먼저 나서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정책연대, 선거연대를 주로 얘기하는데 국민의당은 통합론에 중심을 두며 당내 논란이 커지는 것 같다"며 "국민의당 내홍이 수습되길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당이 사실 갑이 아닌 을 아니냐"이라고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종이비행기 날리는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정당혁신 비전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국민의당 "개헌·선거구제 개편은 국민의 뜻"

공동전선 구축 본격화 … 한국당 동시 압박

한국당 "예산안 밀실거래에 끼워팔기"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7일 개헌과 선거구제 문제를 놓고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압박하자 한국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일로 국민의 뜻"이라면서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하자는 것은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똑같이 이야기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꾸는 것은 우리 사회 모순과 적폐의 근본적 해법이고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짓는 국회의 소명"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고 국회의장도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니 여야가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앞으로 개헌·선거구제 개편 추진을 위해 공동전선 구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개헌·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는 한편 두 당간 입장 조율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차원에서 두 당간 별도의 협의 채널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논의 자체도 거부할 분위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정치구태식, 그리고 밀실거래식 협상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헌과 선거구조 개편 끼워팔기 식의 뒷거래를 비판한다"고 말했다.

일단 한국당은 개헌과 관련, 현실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인데 민주당이 '4년 중임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당이 민주당의 개헌논의를 지방선거용 꼼수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당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더욱 완강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합의 산물인 선거구제 개편 논의 자체에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야합의 산물로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한다면 한국당은 21대 총선까지 어떠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진정 선거구제 개편을 원한다면 한국당에 줄을 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KTX 무안공항 경유 비판 강력 반발

철도는 인구·도시 고려 결정

경부선KTX 보다 15년 늦어

국민의당은 7일 호남선 KTX 무안공항 경유 결정에 대한 자유한국당 등의 비판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호남선 KTX가 '역 디귿(ㄷ)'자 형태로 무안공항을 경유토록 결정해 1조원을 낭비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호남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지는 못할망정 생채기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표는 "철도는 출발지와 도착지만 있는 항공기와 달라 직선거리가 아닌 인구, 도시, 각종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선이 결정된다"며 "현재 경부선 KTX도 대구~부산 직선거리가 아닌 신경주역, 울산역을 우회해서 경유하고, 호남선 KTX도 오송역을 신설해 경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정치권에서 '밀실 야합', '예산 낭비' 등으로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제야 차별을 시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호남선 복선화는 경부선에 비해서 무려 58년 뒤에 이뤄졌다"며 "또 경부선 KTX는 2010년에 개통이 됐는데 호남선 KTX 2단계까지는 2025년 개통된다. 경부선 KTX에 비해서 15년이 늦게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정권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지역차별 정책이다"며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합의에 의해서 이번에 (노선이 결정)된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진 공보부대표도 이 회의에서 "경부선 KTX에 비해 뒤늦게 호남선 광주~목포 구간 KTX 고속화를 착공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죄스러워하고 미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황주홍 의원 광주~완도 고속도 예산 1000억 늘려

"호남 SOC 확충 당연"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강진·장흥)이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에서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예산을 무려 1000억 원이나 증액하면서 정치권의 화제가 되고 있다. 단일 사업으로 한 해에 1000억 원이나 증액한 사례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황 의원이 지역구 사업을 너무 챙긴 것 아니냐는 시샘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황 의원은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예산 증액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은 지역구를 넘어 광주와 전남의 현안 사업이었지만 과거 보수 정권에서 재정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균형발전에 있어 호남의 SOC 기반 확충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호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의 3대 역점 증액 사업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황 의원의 예결위 간사 역할에 대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밀당을 주도한 것은 물론 재정 당국 설득에 성공하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7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수순"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정부 예산안 심의로 지난 한 달 동안 지역구를 거의 가지 못한 것은 물론 보름 이상을 자정 이후에 귀가했다"며 "그래도 호남의 현안 사업 예산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내년 예산안 합의 도출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1일~23일 임시국회 … 5·18특별법 처리 관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국회는 본격적인 입법정국에 돌입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함께 이번 임시국회 기간 5·18진상규명특별법 처리에 역량을 결집할 각오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7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찬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월요일(11일)부터 2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 악 학 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5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4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 6(토) ~ 1. 9(화)
• 전 형 일 : 2018. 1. 16(화)

편 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일반편입(3학년)	모집인원: 정원 외 학사편입(3학년)	모집인원: 정원 외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7(수)
• 전형일 : 2018. 1. 23(화)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 (주·야)	30학점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 (주·야)	60학점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 17(수)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1. 23(화) 오후 2시 30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7	2017. 12. 15(금) 오후 2:30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2017. 12. 16(토) 오후 2:40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석박사통합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믿음이 있는 대학·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